

2 0 2 4 지 구 촌 교 회

# 가 정 예 배 순 서 지

*Merry Christmas*



**VOL.27**  
2024 11-12

# 피해자에 대한 보상



##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 복음성가

지 425장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 01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 0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 03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 04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 0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 0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땡겨 날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 0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 08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 09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 오늘 본문은 재산권이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을 기본 원리로 삼았습니다. 소나 양을 훔칠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했고, 곡식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보상해야 했습니다. 돈이나 물품을 보관하다가 도둑을 맞았을 경우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대립할 경우에도 재판을 통해서 판단하고 피해자에게는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게 될지라도 피해자를 향한 위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나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은 없는지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며 그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2.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과정도 봐야 합니다. 피해자를 향한 보상이 이스라엘의 기본 원리였지만 보상에 대한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랐습니다. 소나 양에 따라 달랐고, 도둑질한 것이 살아있으면 두 배만 보상하면 되었습니다. 도둑이라 할지라도 일어났던 사건의 과정을 살펴봐야 했고 그 가운데 도둑의 기본적인 인권도 보호받았습니다. 가축에 의해 피해를 받거나 불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도 과실과 사고를 구분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로만 판단하지 않고 과정과 동기도 함께 보십니다. 나타난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그 과정과 동기도 함께 살피는 지혜롭게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우리 주변에 나로 인해 상처받거나 피해를 받는 사람은 있는지요? 혹시 있다면 그들을 향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 거짓과 차별



## 찬송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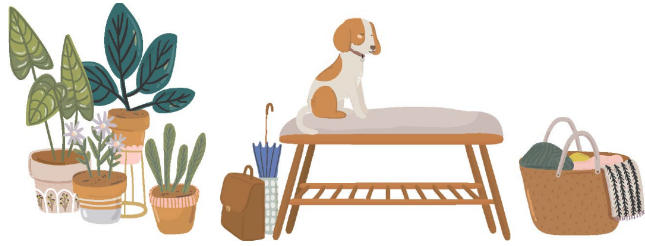
405장

주의 친절함 팔에 안기세



## 복음성가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1-9

- 01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 02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 03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어 두둔하지 말지니라
- 04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 05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 06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 07 거짓 일을 멀리 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 08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 09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1. 사회가 평화를 유지하려면 기본적인 것들이 잘 지켜져야 합니다. 이것은 서로 약속한 것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법’이라고 부릅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도 한 예입니다. 공동체가 서로 약속한 것을 잘 지키며 이해하고 양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법을 규제나 제약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법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초입니다. 오늘 본문은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법이 지켜지지 않을 때 사회는 불안정하게 됩니다.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2. 첫 번째는 “거짓”입니다. 1절에는 “거짓된 풍설”, “위증하는 증인”, 2절에는 “부당한 증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거짓된 풍설”은 “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소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본문에서는 거짓된 소문을 말합니다. 거짓된 소문으로 재판의 논점을 흐려 정당한 판결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증언을 하여 재판의 결과를 바꾸며,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함께 연합하여 거짓을 진실로 바꿔 부당한 증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잠언 16:16~19).
  
3. 두 번째는 차별입니다. 3절과 6절에는 공통되게 “가난한 자”가 등장합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재판에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편벽”이라는 단어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정의를 굽게 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가난한 자는 뇌물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뇌물은 차별의 한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약한 자인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며, 차별이 아닌 공평함을 드러내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거짓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가족들과 나누어 봅시다.

★ '마지막 페이지'로 넘기셔서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 특별한 약속



##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어도



## 복음성가

주 말씀 향하여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4:1-11

- 01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 02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 03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 04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 05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 06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 07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도독을 맞았는데 그 도독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 08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 09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인이 올라가서
- 10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
- 11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뵈고 먹고 마셨더라



1.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규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인 24장에서 이르러서 그 모든 계명에 대한 약속을 체결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12 지파를 상징하는 12 기둥을 세웁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명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는데 이는 봉사와 헌신, 친교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피를 제단에 뿌리도록 하는데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로 맺은 특별한 언약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체결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와 약속을 보여주셨으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순종의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위해 봉사와 헌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며 약속입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내가 오늘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 '마지막 페이지'로 넘기셔서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 법궤와 속죄소



##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 복음성가

지 271장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8-22

- 08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 09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 10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 11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 테를 두르고
- 12 금 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 13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 14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메게 하며
- 15 채를 궤의 고리에 꿰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 16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돌지며
- 17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 18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처서 만들되
- 19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 20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 21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 22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1.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거하시게 될 성소, 즉 성막을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를 모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청사진대로 잘 만들어야 합니다(9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것은 법궤 제작 방법입니다. 성막 안에 법궤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법궤를 중요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두게 될 법궤는 최상의 건축 자재인 백향목을 쓰지 않고, 광야에서 흔하디 흔한 조각목(shitdim나무)으로 만들게 하십니다. 불품없는 조각목으로 만든 법궤를 뒤덮게 되는 것은 바로 순금입니다. shitdim나무와 같은 흔한 재료를 순금으로 덮으셔서 아름답게 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별것 아닌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2. 법궤를 덮는 뚜껑 역할을 하는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고, 두 천사가 마주 본 상태로 펼친 날개를 덮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속죄소 위에서 백성들을 만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속죄소는 영어로 mercy-seat(자비의 보좌)인데 '죄가 용서받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속죄소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직 자비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주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또한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셨습니까?



### 하브루타

1. 전쟁 같은 인생 가운데 누구를 기억하고 있나요?
2.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처음으로 확신하게 된 경험은 언제입니까?

# 살아내는 삶



## 찬송가

찬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 복음성가

지 339장  
말씀하시면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1-12

- 01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02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 03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 04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 05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웃술을 길게 하고
- 06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 07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 08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 09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 10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 11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 12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향하여 지도자들의 교만과 위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비난받는 지도자들은 서기관들이며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삶이 말씀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했고, 낮은 자처럼 여겼지만 어느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고, 복음을 먼저 아는 자들은 왕의 자녀로서 마땅히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은 동일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2. 예수님만이 선생이고, 지도자이십니다. 그 아래 우리는 같은 신분으로 모두가 존귀한 형제자매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중에 큰 자와 작은 자를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원리는 자신을 낮추면 높아지고, 높이면 낮아지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리더십의 절대적 원칙입니다. 자기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에 대한 헬라어는 능동태 동사를 사용합니다. 개인이 의지적으로 자신을 높이고 낮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낮아지는 것과 높아지는 것에 대한 헬라어는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공생애 기간에서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우리가 행동할 때 누구 또는 무엇에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나누어 봅시다

# 표리부동



##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 받는 자



## 복음성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13-22

- 13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 14 (없음)
- 15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 16 화 있을진저 눈 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 17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나
- 18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 19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나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나
- 20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 21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 22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1. 위선은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위선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산헤드린 공의회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 공의회에 구성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겉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보고 “화 있을진저”라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2. 메시지 성경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사기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은 16절의 “눈먼 인도자”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렁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기들만 구렁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마저도 함께 구렁이에 빠지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이런 위선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닌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삶 속에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있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 외식이 아닌 전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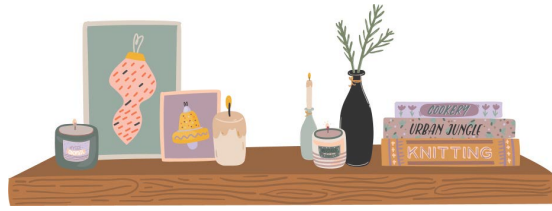
##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 복음성가

지 292장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23-28

- 23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 24 맹인 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 25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 26 눈 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 하리라
- 27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 28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1. 예수님 당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마음과 삶의 뒷모습은 욕심과 더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박하, 회향, 근채와 같이 음식의 양념으로 사용되는 식물에 대한 십일조 까지 하는 사람들이 정작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헌금을 하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한 사랑의 섬김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십일조를 하는 거룩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의 삶도 동일 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2. 또한 겉은 깨끗하지만 안이 더러운 대접과 같고, 사람들에게는 거룩하게 보이나 그 안에 불법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은 거룩하지만, 그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하며,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마음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보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 자신의 만족과 의를 위한 열심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섬기는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내가 신앙 생활하는 이유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함인지, 하나님 사랑 때문인지 돌아보고 나누어 봅시다.

# 교훈을 얻지 못하면



##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 복음성가

지 385장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29-39

- 29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 30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 31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 32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 33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 3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운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운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 35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 36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 37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임탁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 38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 39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위선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존경받을 만한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위해 무덤과 기념비를 장식하곤 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곧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일에 가담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여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지자를 박해하는 일보다 더 큰 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피 흘리는 일에 앞장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상으로부터 교훈을 제대로 얻었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았겠지만 그들은 똑같이 완고하고, 어리석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역사의 교훈을 통해 스스로를 살펴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훈을 통해 심판을 피하게 하십니다.
  
2. 예수님은 심판이 임하게 하는 화(禍)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있습니다.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몇 번이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셨던 마음을 알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돌보기 원하시고, 심판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버림받아 황폐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38절),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나의 어리석음으로 이전의 잘못을 반복한 경험이 있습니까? 항상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내 안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 '마지막 페이지'로 넘기셔서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 세상 끝의 징조



##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 복음성가

지 386장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1-14

- 01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  
이려고 나아오니
- 02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  
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 03 예수께서 감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  
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  
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 0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 05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 06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 07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  
이 있으리니
- 08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 09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 10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 11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 12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 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 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성전 안에서 예수님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말이 믿기지 않는 듯 웅장한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며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새번역, 마가복음 13:1b) 그러자 예수님은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마태복음 14:2b)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후 감람산에 갔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마태복음 24:3b)
  
2.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와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를 함께 바라보며 답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말하며 두렵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세상 끝 날이 임박했을 때 일어날 일들도 알려 주십니다. 그때가 되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지금보다 더욱 심각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당하고 순교할 것입니다. 겉으로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을 버릴 것이며 진실한 성도를 고발하고 미워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은 식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끝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뜨겁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뜨거워지며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나의 사랑은 점점 식고 있나요? 더욱 뜨거워지고 있나요? 사랑하지 못했던 순간을 고백하고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 우리가족 기도제목

Blank lined area for writing prayer requests.



Blank lined area for writing prayer requests.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 가정예배 이렇게 드리세요

- 1**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보세요.  
가정의 상황에 맞게 예배의 길이와 횟수는 조정하시면 됩니다.
- 2** 예배의 형식과 방법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부모님은 사회자 역할을 해주시고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 3** 말씀을 나눌 때 메시지가 자칫 자녀를 혼시하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해 주세요.  
오허려 하브루타, 축복기도, 기도제목나눔 등을 통해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 하브루타란,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대화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질문하고 어떤 대답도 존중하며 대화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 4** 찬양시간을 통해 자녀들이 찬송가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성가와 어린이 찬양도 함께 불러보세요. 순서지에 제시된 찬양보다 더 많은 찬양을 불러도 좋습니다.  
지구촌교회 GMC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찬양이 있습니다
- 5** 가정예배는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하지 않아도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아래의 QR코드를 통해  
가정예배 드리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  
가장 축복기도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저에게 가장 잘 맞는 사랑하는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를 기뻐하며 언제나 주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위해 항상 수고하고 헌신하는 아내를 축복해 주시고, 아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내가 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의 사랑을 평생토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깊이 사랑받고 있는지, 얼마나 소중한지 저를 통해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우리 결혼 생활의 변함없는 인도자이며 동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부의 축복기도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며)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이 주는 사랑을 통해 나는 오늘도 풍성한 행복을 누립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의 수고가 있기에 나는 오늘도 기쁨을 누립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 축복기도

사랑하는 **자녀이름** 아.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11) 하나님! 인생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자녀이름**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 당신께로부터 오는 공급과 보호하심을 깨닫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자녀이름**가 내딛는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자녀이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이름**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아이로 자라 가게 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신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잊지 않게 하셔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열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님을 위한  
자녀의 기도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닮은 부모님을 주시고 늘 웃음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잘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해 주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게 하시고 늘 평안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일상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부모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한 부모님의 수고를 축복해 주시고 항상 당신의 보살핌 가운데 있게 하시고 늘 새로운 힘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을 위한 기도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고 안전함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때로 제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을 때에도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저로 하여금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저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대로 저를 인도하시고 저의 뜻이 주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심으로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